

문 34: 양자로 삼는것이 무엇인가 ?

답 34: 양자로 삼는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것인데 이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요한일서 3:1-2; 요한복음 1:12; 로마서 8:17

질문 1: 양자 삼는것은 누구하는 것인가?

질문 2: 양자 삼는것은 왜 필요한가?

질문 3: 양자로써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질문 4: 양자 삼는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5: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설명:

양자로 삼는 것 역시 법적개념이다.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한 아이가 양자가 되기 전에는 부모와 육적으로 무관한 사이 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 법에서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그 자식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양자로 삼아 내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자도 내 자식이 된다.

의롭게하심과 동일하게 양자 삼는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이미 공부한데로 양자가 되는것은 양부모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도 양부모를 무력으로 할 수 없는것과 같이 하나님도 원치 아니한 사람을 억지로 양자로 삼으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 삼는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양자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양자의 신분과 정체가 변하고 새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신인 것이다.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기전에 누구의 자녀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있다. 가장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알기전에 우리는 고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가장 나쁜 의미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8:44)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것은 놀라운 변신인 것이다. 양자가 됨은 타락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돌림을 받은 것이다.

죄인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죄인들이 의롭다 함을 입고 양자로 살아가는데는 많은 적응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죄인들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몸에 베여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적, 육적, 정신적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닌것과 같이 양자가 친자식과 같은 느낌을 갖기 까지는 부모와 친자식의 노력뿐 아니라 양자도 무던한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양자의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다. 법적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을 가져다준다. 양자는 양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권한과 자격 그리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양자 역시 친자식과 같은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별히 상속적인 개념으로 보면 양자나 친자식이나 함께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다.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영적이며 영원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가장 큰 특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마 6:9; 갈 4:7; 롬 8:15-16)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양자로서 누리는 또 다른 특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롬 8:14)

그래서 양자 삼으심의 목적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양자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신다. (누가복음 15:7)

양자 삼으심을 몇가지로 분석하여 생각해 본다.

첫째,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떤 긴 과정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법적으로 양자가 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양자가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냐는 한 순간에 결정난다.

둘째, 한번 양자가 되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으며 영구적이다. 그 이유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자됨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양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셋째,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는 없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한다.

양자교리에 대해 두가지 혼돈을 갖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하나님의 양자 삼기의 교리는 “모든 인류는 한 형제이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 모든 인류가 한 형제라는 것은 절반 만 맞다. 그러나 절반 만 맞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모두가 한 형제라고 표현한다. 얼른 들으면 맞는것 같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죄로 인해 인생은 타락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될 수 없었다라는 말이다. 다시말해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다. 타락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과 마귀의 자식과 한 형제라는 말은 너무도 비성경적이며 비신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비크리스천과 한 형제가 될 수 없다. 외부적으로 표현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이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해서 또 양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변신이 우리를 신격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피조물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자격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변신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2 장 자녀로 삼으심에 관하여

12-1.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분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며 그들의 자유와 특권들을 누리며, 그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며 양자(養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아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그에 의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징계를 받고,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그 약속들을 이어 받는다.
